

## 한기총, 'WEA 서울총회' 강력 반대

포럼개최…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에 물든 WEA, 서울총회 즉각 중단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4월 29일(화)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학·실천·역사적 관점에서 본 WEA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2025년 서울에서 예정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의 개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WEA의 신학적 방향성과 실천적 행보가 개혁주의 신학과 상충되며, 종교 혼합주의 및 다원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는 양진영 박사(광신대학교 조직신학), 서장원 박사(전 종신대신대원 역사신학), 김효숙 박사(광신대학교 역사신학)가 참여했다.

양진영 박사는 "WEA는 외형적으로 복음주의, 정통신앙,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로마 가톨릭, 이슬람, WCC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학적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EA의 실천은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는 '문화적 포용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장원 박사는 "WEA 부사무총장 사무엘 치앙이 무슬림 단체와 최고의 친구라고 밝힌 점이나, 국제 위원장 굿윌 사나가 변명신학을 강조하는 등은 모두 WEA의 신학이 복음의 본질과 벗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총회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회 전체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효숙 박사는 "WEA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수용하며 경계를 허물고 있다"며 "이는 종교 혼합주의 및 다원주의적 성향의 구체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WEA의 행보를 볼 때, 로마 가톨릭과 무슬림과의 밀착 행보는 WEA의 신학이 종교 혼합주의 및 종교다원주의 신학임을 보여주는 일례"이며 "이에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2025 WEA 서울총회' 개최를 중단함으로 한국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성경적 화합의 길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WEA 총회를 주진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소속 교단의 지지자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총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WEA 총회 개최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영적 권위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총회 주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으며,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공동위원장으로 맡고 있다.

### 포토뉴스



## 다수국민의 인권 역차별 중단 촉구

“퀴어축제 불참 선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혐오세력?”

친동성애 단체들이 퀴어축제 불참을 선언한 국가 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데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은 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 국민의 인권 역차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이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 대변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연 사실을 알고 공분을 느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

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사고이며, 자신들을 특권계층으로 인식하는 매우 위험하고 독선적인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노골적 중립의 무 위반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인 인권위 직원 중 일부가 '인권위원회 엘리아모임'을 결성하여 그 이름으로 퀴어축제에 참여해 부스까지 차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절대 좌시치 않고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제재당해온 우리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응석받이 행동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직원들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고 재정 지원을 해온 과정을 강력 규탄하며 더 이상 용납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특정소수집단을 비호하며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기사를 쏟아내도록 부추기는 한국기자협회와 협약한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기하라!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참석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퀴어축제 측의 요구에도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직원들은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                            |                        |
|----------------------------|------------------------|
| ■ 국민은행<br>061701-04-176877 | ■ 예금주<br>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 ■ 농협<br>301-0153-7296-01   | ■ 문의<br>02)2675-5181~3 |



##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조용목 목사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신 28:9)

관념이나 신앙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

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노력과 수고가 허입니다.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노선 선택입니다. 그 영향과 결과가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의 삶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에 관련하여 네 종류의 노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 노선이 있습니다. 무신론 가운데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의롭고 진실하시며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무신론에 기반을 둔 철학이나 사상이나 체제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노선입니다. 둘째는, 불가지론 노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존재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정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의 평가는 억지 주장인 것을 밝히 드리겠습니다. 불가지론은 1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우상종교 노선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 신앙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넷째는, 기독교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 역시 하나님 계시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계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노선입니다. 일반 종교의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여도 실상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노선을 다섯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윤법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윤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기록하도록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윤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외곡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윤법의 역할은 인간의 범죄를 드러내는 한편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 입니다.

(온혜와진리교회)

## 화재 피해 성도 돕기 긴급 기도 및 지원 요청

“여러분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괴산순복음교회(담임 기호선 목사) 성도이며, 김세희 사모의 친정어머니이신 심정섭 집사님의 자택이 5월 12일(화) 오전 11시경,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시 심 집사님은 요양보호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기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거주하시던 집이 완전히 소실되어 삶의 터전과 생활필수품 전부를 잃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정섭 집사님과 가족에게 하나님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장 생필품과 재정적 도움이 절실히 상황입니다.

기도와 후원 안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독교 기도와 후원 안내

후원 및 물품 전달처: 괴산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송평길 105-7

문의 및 연락처: 010-5145-3816(심정섭 집사 가족 연락처)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손을 맞잡아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



물러나 시민활동가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등을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 한기총, 산불 피해지역에 2차 지원 성금 전달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큰 상급이 되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지난 4월 28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지역 연합회 목회자들과 함께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교회 군 기독교연합회 위로예배 및 전달식'을 갖고 각 연합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진 진짜 목사님들이 계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돋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는 '생수 한 그릇'(마 10:42)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친절과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큰 상급이 됨을 믿고, 오늘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예배에 참석한 영덕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충연 목사는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지역 사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런 도움의 손길이 위로가 될 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된다"며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크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역을 살리

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17일(목)에 의성, 청송, 영덕, 안동 등 경북 지역 교회와 지역 연합회를 직접 찾아 '파리 복구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2차 전달식을 통해 그간 모은 성금을 모두 전달하며 산불피해 교회들의 회복을 기원했다.

##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2025 국제컨퍼런스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KNAADAC 공동주최 6월 6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2025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6월 6일(금) 광명 라끼사호텔 7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으다.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과 KNAADAC(한국나다, 이사장 김도형 목사)이 공동 주최하

국나다 대표 Terrence D. Walton가 '미국 중독문제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 최경찬 주무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재활정책'에 대해 강연하며, 미음사랑병원 중독팀은 '미음사랑 병원 소개 및 중독병원치료의 실제'에 대해, 그리고 한국나다 이미숙 대표는 '중독치료에서 가족 간화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강연할 방침이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태를 전하는 것과 더불어 중독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컨퍼런스는 법무부, NAADAC, 미음사랑병원, 엔브레스마인드, 어업코리아, CITS, 세움평생교육원이 후원하며, 신청마감은 5월 24일까지다.

△신청문의: 02)2681-2093, 또는 www.knaadac(교육훈련 신청하기).

## 2025년 한국교회 총무회 정·총, 김종명 신임회장

한국교회 연합과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재확인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무(사무총장)들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무회가 2025년 한국교회 총무회 정기총회를 5월 3일 부활절연합 예배 해단식을 겸하여 백석총회회관 2층 예루살렘홀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 72개 교단 60여 명의 총무들이 모여 1년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회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

정기총회는 회장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회무에 앞서 개회기도에 부회장 박용규 목사(예장합동 총무), 회원 점명 서기 문창국 목사(기성 총무), 회무 점명 서기 문창국 목사(기성 총



무), 회장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사무총장)가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에 서기 문창국 목사(기성 총무), 감사 보고 감사 강동규 목사(예장개혁선교 총무), 회계 보고 회계 장인호 목사(예장대신 총무), 회무처리로 규칙개정

안이 상정되어 정기총회를 매년 5월에서 9, 10월 중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정회 후 곧바로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 신임회장에 김종명 목사(예장백석 사무총장)가 선출되어 임원을 조치했다.

##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환영회 개최

아신대 다문화복지대학원, 상호문화교육 바탕 어울림

아신대학교 다문화복지대학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어학당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손신 교수가 환영사를 전하고 이한영 부총장이 축사했다. 또한 정금영 동문회장은 유학생들에

게 인사말을 전하며 격려했다.

하태선 교수의 식사 기도 후 베트남요리 인반미샌드위치와 쌀국수, 한국요리 짜채와 찰밥 등 푸짐한 저녁식사와 과일이 제공됐다.

2부 순서는 김한글 원우의 축가로 분위기를

돋웠고, 상호문화교육을 바탕으로 한 어울림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4월 생일을 맞은 유학생들을 위한

생일 축하 시간도 이어졌고, 중간고사 우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특별한 격려의 시간이 진행됐다. 그밖에도 희망 풍선 날리기 시간에는 저마다의 희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며 미래를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전병철 교수의 마침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 베트남 유학생 외에도 해외 학생들의 정착을 돋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 한장총, 부흥목회로 새로운 교회부흥 견인

4월 28일~5월 1일까지 주다산교회에서 '2025 살롬부흥 목회세미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주최하고 살롬부흥세계선교회가 주관한 '2025 살롬 부흥 목회세미나'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다산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목회세미나는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 아래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를 주강사로 하여, 소그룹목회 전문가인 이상화 목사(서현교회)와 스파크 양육교재 공동저자인 권지현 목사(다음세대교회)가 강의를 진행했다.

첫날 개회예배 및 강의에서 권순웅 목사는 살롬부흥 7-UP 목회에 대한 내용으로 개혁신학 목회적 적용, 예배, 소그룹, 제자양육, 전도, 다음세대, 리더십 개발을 강의했으며, 주다산교회의 축복설전도와 가족설 현장을 함께 참관하기도 했다.



권순웅 목사는 주다산교회를 개척하여 살롬부흥 목회의 이론인 스파크 목회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부흥했다. 스파크양육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복음마당(복신), 체험마당(성경), 실천마당(전도)이 있으며, 둘째날 저녁에는 치유세미나와 마지막날 오전에는 이단세미나인 담임줄세미나가 실시됐다.

##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 과정 개설

한국미디어선교회, AI를 활용한 전도와 선교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AI)을 목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공동체와 다음세대 교육 활성화에 선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을 본격화하여 과정을 개설 진행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5월 3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소망홀에서 진행된다.

미래목회포럼과 한국미디어선교회가 주최하고, 국제미래학회 및 글로벌 인공지능 교육원, 한국기독교AI선교위원회가 주관하며, 전국기독교수연합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 4/14원도우한국연합,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크

리스천들이 챗GPT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목회와 선교, 교회 공동체 및 다음세대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방법을 억지하게 한다. 특히 10만 크리스천 AI 미디어선교사 양성을 주창하며 본 과정을 종결하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적 지원"이라며, "AI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전도와 선교 및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크리스천들이 챗GPT와 최신 AI 기술을 전도, 선교, 다음세대 교육에 강력한 도구로 선용할 수 있도록 본 실전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성서공회, 라오스에 성경 기증

진천중앙교회 · 이천신하교회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지난 4월 18일과 25일, 진천중앙교회(김우종 목사)와 이천신하교회(홍성환 목사)의 후원으로 라오스에 '라오에 성경' 각각 3,700부, 1,600부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진천중앙교회 김용신 목사는 "라오스에 보내지는 성경이 그 나라에 도착해서 아직도 성경을 필요로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라며 성경을 통해 라오스에 일어날 은혜를 기대했다.

이천신하교회 홍성환 목사는 "성경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할 것이고,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이 성경 한 권이 라오스 땅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

이 될 줄 믿습니다."라며 라오스 땅에 임할 말씀의 역사를 확신하며 기쁨을 전했다.

라오스성서공회 파이라나 사하싸와스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라오스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들의 영혼을 채우고, 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입니다. 라오스에 성경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공회 호재민 총무는 "여러분이 후원한 성경은 성경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라오스 성도들에게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과 건강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기대를 전했다.



## 고신엘더포럼 창립, 김형원 장로 초대 대표에

"하나님 뜻 실천하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다"

예장 고신족 시니어들의 모임인 고신엘더포럼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잠실중앙교회에서 창립예배 및 종회를 갖고 김형원 장로를 대표로 선임했다.

대표로 추대된 김형원 장로는 인사말에 서 "고신엘더포럼은 특정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진심의 모임"이라며 "기독교 세계관의 확장과 개혁신앙의 실천을 통해 한국교회와 고신교단, 그리고 개체 교회의 건강한 성장

에 기여하는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윤리를 위해, 장로의 사역 영역 확대를 위한 혁신을 이곳에서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종회는 배영진 장로(평단협 회장)의 사회로, 조대형 장로(수장연 전임회장)가 기도하고, 김삼관 장로(전임 부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형원 장로가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서 김연출 장로의 경과보고와 안건 토의,

창립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종회에서는 먼저 김형원 장로가 초대 대표로 추대되었으며, 고문과 자문위원, 실무 운영이사 등이 확정되며 조직 구성이 이뤄졌다. 이어 창립선언문이 낭독됐다. 손의 장로(수도원장)로 회연합회 회장)가 낭독한 창립선언문은 장로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선언문은 '고신엘더포럼은 교회의 장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회복하고자 창립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임이 시작되었음을 믿는다'고 밝히고, △한국교회와 고신교단, 개체 교회의 발전에 혁신적 성경과 협력 및 선교 지평 확장 △연합과 일치를 위한 건전한 의견 제시 △장로다운 자세로 정체성 확립 등의 목표를 담았다. 전우수 장로(전장연 전임회장)의 기도로 폐회했다.



## | 생명의 말씀 |



김 견 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담임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장

##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1-5)

나일강변으로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어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암을 친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느냐 벗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80세 된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땀나루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이제 암을 치는 미디안의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 같이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구된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발을 벗어야 할까요?

## 1. 부정한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 이면에는 네 발의 신은 부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신발을 벗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은 행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은 것은 진실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과거와의 절대 단절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론서를 쓰는데 이론서란 밟을 리(履), 신바닥력(歷), 즉 자기 발로 걸어온 경로를 쓰는 것이요, 신발이 다닌

자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이제 모세의 과거의 이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벼려야 할 과거란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벼려야 할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한데서 온 열등감입니다. 또 모세는 혈기를 부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하 인간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도록 변합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생각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추한 신발을 벗고 이 과거와의 단절을 성공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족으라”(딤전 6:11)고 한 것입니다.

## 2. 자기주장과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은은 자기 권리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롯 4:7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이방세계에서도 노예는 신발을 벗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자기 권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아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동포를 구

원하여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양을 치며 이제 더 대기할 것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어 벼렸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나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 번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출입할 줄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줄까요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결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그런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26)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교만과 나태와 불순종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 3.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특수한 땅입니다. 신을 벗어야 들어가는 땅입니다. 수 1:30에 “무릇 너희 밸비단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수 5:15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르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비단으로 밟는 곳 즉 밸비단 도장이 어야지 신바닥 도장이어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며 참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서 벗을 신의 의미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불순종의 신을 벗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름대로 모든 약속은 곧 천국의 혜택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또 믿고 생명 걸고 믿으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사환에게 올라가 빠라 비가 올 것이다. 가벼라, 가벼라, 가벼라, 일곱 번이나 가보라고 했던 것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것은 믿음으로 혹은 행할 것은 순종함으로 모든 약속하신 것을 이 지상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신발을 벗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동정

제2차 학술세미나 김균진 박사



한국신학아카데미  
(원장 김균진 박사)가 지난 5월 9일(금) 서울 안암동 소재 크로스빌 딩 5층 한국신학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구약율법과 신약복음의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2025년 본학기 협약 이장식 교수 기념 제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균진 원장의 사회로, 오성종 교수(전 칼빈대 교수, 신약학)가 ‘공관복음의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컨퍼런스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과 KNAADAC (한국 나단, 이사장 김동형 박사)가 공동 주최하는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2025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6월 6일(금) 경기 광명시 일직로 라까사호텔 7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중독 관련 전문가와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열릴 컨퍼런스는 이번이 7회째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 한동대 청소년코딩 교육브랜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환동해지역혁신원이 청소년 코딩 교육 브랜드 ‘Re:Bot’을 론칭하고 지역 교육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환동해지역 혁신원은 지난 4월 24-25일 양일간 포항시 환동해지역혁신원 제1캠퍼스 파랑뜰에서 ‘2025 Re:Bo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차금법으로 교회가 무너지면 안돼



정소영 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 대표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1기 출신 미국 변호사다. 다음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팔팔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라”라며 “영국 등 서구교회처럼 저금법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 공직선거법 유죄 받은 사람이 또 나오나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그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다. 즉 2심에 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짙질 끌다가 갑자

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2심에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 당사자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 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임

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결코 썩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 사실은 2020년에 대법원이 제대로만 판결을 내렸어도 국민들은 거듭되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혼돈과 혼잡과 혼미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가? 범죄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하여 만들 어진 여론조사 수위(首位) 후보로서 괜찮다는 것인가?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받은 야당의 대선 후보자는 그가 과거 했던 말들도 문제가 많다. 미군은 접경군이다’ ‘일본은 적성국이다’ ‘연합 훈련 핑계로 자위대 군홧발 한반도 더럽힐 수도 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세세 이리면 되지’ ‘종북몰이’는 범죄 행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등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대선(大選)에 나가기 위하여 그 발언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최근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하고 있는

데, 과거에 그가 그분들을 평가한 것을 모두 철회한 것인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세술은 매우 위험하다. 근본을 감추고 목적을 이룬 후에 그 본성이 뛰어나온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발동이 되든지, 공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창호 인권위원회와 인권위 직원들은 다음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특정세력과 결탁하여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안창호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한 인권위 직원들의 오만불손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며, 공무직에서 물러나 시민활동가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만일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임’이 키어축제에 참여해 부스까지 차릴 경우 절대 좌지치 않고 행사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5. 1.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번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 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월간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茅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기자성연대, 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 1면에서 이어짐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국민의 인권 역차별 중단하라!

우리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이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 대변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연 사실을 알고 공분을 느끼 이 자리에 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터무니없음은 물론, 우리들을 향해 ‘혐오세력’으로 공표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음세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일평생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들이다. 그리고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행복한 가정, 건강한 다음세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행사를 개최해왔고, 매년 참여자 수가 늘어나 작년에는 20여 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다음세대를 넘어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들을 혐오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안창호 인권위원회를 압박했는데, 대단히 모욕적이며 어처구니없는 망언(妄言)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사고이며, 자신들을 특권계층으로 인식하는 매

우 위험하고 독선적인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그 누구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건 전체주의자들의 광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날 언론방송의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기자회견은 절저히 외면하면서 LGBT 등 소수집단의 목소리는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상세히 보도하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는 공정성을 의심 받을 행동이다.

우리는 한법 제21조 4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롯한 전세계 언론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무자별 침해하고 있으며, 특정소수집단의 하수인이 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짓밟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특정소수집단을 비호하며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기사를 쏟아내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협약했기 때문이다. 이는 반법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협약이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

어제 뉴스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퀴어 축제 ‘불참’에 인권위 안팎서 ‘안창호, 혐오 편에 선 것…위 원장 자격 없어”, “성소수자 인권단체 혐오 앞 중립 운운한 안창호, 차별 동조”,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인권단체, 퀴어 축제 불참 인권위 규탄”, “내란옹호위원회 오명 쓴 인권위, 이제는 차별조장 위원회로 몰락하나” 등으로 언론의 노골적 편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음란성 및 LGBT 미화로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맹목 응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추구해야 할 언론방송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며, 진실한 정보를 유통시켜 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한 교육적·비판적 역할

## 운동회 개최, 쉼과 충전의 시간 가져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안종식 목사)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안병찬 목사)는 지난 5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전 참여 신청을 한 400

여명의 성도들이 천안시 백석동 환서초등학교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에 모여서 한마음운동회를 개최했다. 개회예배에서 안병찬 목사는 오늘 이 시간에 영·육간에 충분한 쉼과 충전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OX퀴즈를 시작으로 백팀과 청팀

으로 나눠서 각 기관별로 장애물통과 달리기, 풍선 밟기 게임을 비롯해서 15개의 다양하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풍성한 상품과 경품을 시상했고 청·백팀 줄다리기 게임을 끝으로 열정적인 경기와 응원으로 각 소그룹들과 성도들 상호간의 단합과 우애를 다지는 일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 “다음세대를 지키는 방파제 되자”

6월 14일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열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7일(목)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4일 광화문, 시청, 숭례문 일대에서 ‘다음세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는 주제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정책 기본법안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의 공격은 마치 영적인

쓰나미와 같다”며 “선진국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무너진 것은 거룩한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희 목사(에스더기도운동)는 “국민 여론을 통해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회가 국가와 교회를 지키는 ‘영적 요충지’의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장 이용희 목사(에스더기도운동)는 “동성애축제 반대 통합국민대회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며 “통합국민대회는 먼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

이다. 통합국민대회로 모여 이 장소를 거룩하게 지켰기에 동성애 축제에 모인 동성애자들이 이 중심도로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염무법인 I&S)는 퀴어축제 참가자의 다수가 젊은 세대임을 지적하며,

“동성애의 실상과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역시 “지금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대회는 특별기도회와 개회식, 국민대회, 퍼레이드, 문화공연으로 구성되며, 자주민주주의 수호와 태아 생명 보호 등 기도제목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청년위원장 김혜수 씨는 성명서를 통해 “퀴어행사는 헌법을 위반하고, 음란성과 선정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13회 정기총회**

**2025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고문	고문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전임회장	직전회장
최해선 사모 기흥교회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2025 전국사모회 임원진**

회장	수석부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재무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손선희 사모 홍제은혜교회	최인석 사모 부산갈릴리교회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박미용 사모 순복음한마음교회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나명숙 사모 상주반석교회	이순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최윤정 사모 언양순복음교회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이을순 · 총무 김세희 (010-2610-3816)**

# 2025년 부흥사회

**202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	전임총회장·지도고문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전임회장	전임회장	직전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배진기 목사 (안디옥교회)	진동용 목사 (온양은혜마산교회)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김양인 목사 (천주은혜와진리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새길천교회)	김병득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김영준 목사 (갈릴리큰소망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일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희래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문교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총무	
김견수 목사 (제주한미대학교)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오승우 목사 (천안서북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층은고교)	조은혜 목사 (순복음은혜사랑의교회)	윤영희 목사 (순복음주천미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일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박홍렬 목사 (오성사랑교회)	김연욱 목사 (행복한선교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정환무 목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을순복음교회)	우보애 목사 (소망농어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늘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별교회)	우관덕 목사 (신한목자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황연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예정희 목사 (예수사랑교회)	김희자 목사 (새로와지는 교회)	조미숙 목사 (주님의은혜교회)	박은정 목사 (엘림교회)	안병찬 목사 (순천아름다운교회)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장 김견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TEL: 031)227-5992-3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11시00분 : 예배 및 기도회**  
**13시00분 : 점심식사**  
**14시30분 : 맨발 걷기**  
**16시30분 : 차와 은혜 나누기**  
**17시30분 : 식사 후 다시 목회 현장으로**








# 고려인 국제대안학교 건립 '구해줘 스쿨' 캠페인

한국해비타트, 언어장벽·편견으로 일반학교 진학 어려워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서 국내 최초 고려인 국제 대안학교 건립을 위한 '구해줘 스쿨' 캠페인을 시작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청소년 50여 명이 다니는 고려인 대안학교는 남녀공용 화장실이 한 개뿐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단체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정식 학교로 인가받지 못해 학력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출석률이 99%에 이를 만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고, 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대기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시설과 공간으로 현재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해줘 스쿨' 캠페인에 참여하면, 고려인의 강제 이주가 있었던 1937년을 기억하며 1,387원을 후원하고, 고려인 출신 모델 박유리와 고려인 학생들의 손글씨로 제작한 폰트 '해비타트 고려인체'를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손글씨는 스텀린에 의해 고려인 정체성 말살을 목적으로 한국어 사용과 교육이 금지되던 시절에도 지켜낸 언어와 정체성을 상징하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자는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일일 학생증'을 만들고 손글씨 폰트로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매월 추첨으로 '구해줘 스



쿨' 피규어 블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우리나라 최초 고려인 국제 대안학교 건축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해비타트는 3인 1실 기숙사 40실, 7개의 교실, 식당 등을 포함한 150명 정원의 기숙형 정규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캠페인 모델 박유리 씨는 "고려인은 같은 한국인 이자 한민족, 나의 뿌리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고려인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 이광희 사무총장은 "고려인 학생들은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손글씨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손글씨 폰트를 제작한 이유"라며 "'구해줘 스쿨' 캠페인을 통해 고려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랙핑크 제니가 팬클럽 BLINK 이름으로 1억 원을, 가수 선은 6천 5백만 원을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해 후원한 바 있으며, '구해줘 스쿨' 캠페인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 살롱논평

#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논평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빠른 파기환송 판결로 지난달 현재의 8:0 대통령탄핵인용 편파적 판결로 인해 신뢰와 권위가 추락한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하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유의 신속 사건 판결을 하여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쳐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하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롭은 5월 6일 중앙일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20대(18~29세)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24%였다. 30대에선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0%였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나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을 동반한 대선 이후로 연기 요청에 즉각 굽복하여 서울 고법이 대선 이후로 파기환송심을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2심의 오심(誤審) 판결을 파기자판으로 매듭짓지 못한 허술한 판결이 된 것을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 살론나비는 이를 안타깝게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조희대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사법부가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堡壘)임을 보여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선거법 사건은 유례없는 사법 불신이 있어 신속처리" 해야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약속대로 2심이

1심 유죄 선고와는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으로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동안 사법 판결이 너무나 자연되어 윤미향, 홍운하(1심 3년형 유죄, 2심 무죄판결) 등 유죄판결 받은 인사들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비정상적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냈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합성, 정통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5·1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법 상식을 되살린 것이다.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은 기록력(羈束力)이 있어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 조희대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무너진 법원의 정의를 되살렸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하위 증언 선거법에 걸려 출마 자격을 상실한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권순일 재판관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거대 야당의 당수가 되어 이번에 다시 야당 대선후보가 되는데 비롯된다.

그동안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자

야 한다"고 천명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히 이에 해당된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은 "정치인 하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치인의 범언 진위를 유권자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재명 골프 발언 들은 일반 선거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결 했다. "국토부의 협박 받았다는 발언도 유권자에 잘못된 인상 줄 수 있다"고 보았다.

4. 대법원이 파기자판(破棄自判)했더라면 논란에 중지부를 찍고, 사회적 에너지 소모를 방지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상식으로 봐서도 파기자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대통령까지 탄핵 인용해 사법부(현재)가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거대 야당에 셋다는 비난을 피해야 할 것이다. 파기자판이란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원심이 유죄일 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일 때는 형량까지 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파기자판은 재판 종결로서

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5심(5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회적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5. 서울 고법이 파기환송심을 거대 야당의 탄핵 위험에 굴복하여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연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심리 날짜 연기에 대해 신중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하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더 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고법 형사부 재판부는 5월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일자를 거대 야당의 위협에 놓이겨 대선 이후 6월 18일로 변경하였다. 이유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거대 야당이 탄핵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투표하기 전 형사피의자가 대통령에 선출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미 야당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까지 만들 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제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

# 총동문대회·교역자부부 초청수련회 개최

서울신대, 학생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

서울신학대학교(총장 강덕형)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25년 총동문대회 및 전국교역자부부 초청수련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동문과 교역자 부부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지고, 학교의 비전과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 첫날에는 개회예배와 탁구대회가 진행됐으며, 개회예배에서 강덕형 총장은 명예대회장으로서 인사말을 전하고 총동문회장 주기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사말은 전한 강덕형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 민족의 절망 속에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선배들의 헌신이 오늘의 기반이 되었다"며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비전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동문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신인의 밤'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

며, 총동문대회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부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堡壘)임을 보여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선거법 사건은

회자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의 일탈 문제는 실제하는 위험이다. 절제되지 않는 정치 성향,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집단의 이념적 편향성이 걸려지지 않고 판결로 표출되어 사법부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법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대법원이나 현재의 최종 재판에서 끝나는 제도의 관점에 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대법이나 현재의 선고에 대하여 공감을 갖도록 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다. 권순일 재판, 2심 무죄 선고 등으로 오늘날 사법부의 재판은 상식과 양식에서 벗어난 판결로 인해 사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5월 2일 이

재명 파기환송심을 하루만에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입법부의 탄핵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파기환송심을 법리적으로 처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8. 한국교회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구약 예언자 이사야는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부의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그릇되어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다.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 네 은은 씨끼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짚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사 1:21-23)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재판에 있어서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지를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 강단은 예언자의 소리,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한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사 1:27).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육회로 하느니라"(잠 14:34)

2025년 5월 2일  
살론을 꿈꾸는 나비행동

##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시대”

한국, 유소년(0~14세) 비율 세계 최저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로,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유엔 ‘세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일본(11.4%)보다 낮고 조사 대상 3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프랑스(16.5%), 미국(17.3%) 등 서구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유소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은 이 수치가 2025년 9.7%,

2060년에는 6.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1명도 어린이가 아닌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생산기능 인구 감소, 교육 및 국방 체계 변화 등 광범위한 사회적 재편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11년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은 0명대에 머물고 있어, 일시적 반등에 기대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체 전환과 사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아신대학교, 개교 51주년 기념예배 드려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

2025년 5월 8일(목),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개교 5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직원, 재학생, 동문, 이사진 등 내외빈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학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정홍열 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장혁 이사(드림교회 담임목사)의 기도로 이어졌다. 특송으로는 AIGS(아신대학교 국제교류원) 학생들이 ‘십자가의 전 달자’로 은혜로운 친양을 올려드렸다. 이 날 말씀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장호 이사장(높은뜻광성교회 담임목사)이 “은고이지신(謫故而知新)”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해오신 지난 51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 진리에 기초한 선교적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근속폐 수여식이 있었다. 30년 근속에는 채광석 직원, 20년 근속에는 류승희 직원, 10년 근속에는

에는 이수인 교수가 각각 평가를 수여받았다. 또한 ‘자랑스런 ACTS 동문상’도 수여되었다. 수상자로는 김미연 동문(아세아학과 86, UN정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동문(신학과 87, ACSA 초대회장), 곽효준 동문(신학과 99, ACSA 초대총무)이 선정되었으며, 총장이 직접 시상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주경훈 목사(신학과 95, 오윤교회 담임)의 영상 축사와 김승준 목사(아세아학과 89, 학부 종교문화장)의 현장 축사가 전해졌으며, 감사예배는 이재훈 이사(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기념촬영 후 참석자들은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개교기념을 축하하며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아신대학교는 1974년 설립 이래,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다. 이번 51주년 기념 예배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왕상 8:36)

5월 새날이 시작되었다. 닫혔던 하늘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이른 축복의 비와 늦은 축복의 비를 주시사 5월 축복의 간증이, 기적의 간증이, 치료의 간증이 넘쳐 나시기 를 축복한다.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하면서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넬료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과 같이 세트로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접기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되길 바란다고 한국교회 가정들을 향하여 오늘도 와치고 내일도 와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중장대한 결단도 서슴지 않고 울인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귀함을 다시 한 번

알게 한다.

누님과 동생들이 모두다 구원 받아 권세가 되고 남동생은 해남 고향의 면사무소 면장으로 동네의 모든 이들을 섬기고 있다. 박영수 목사는 일찍이 전도자로서 한국교회와 세계인들을 향해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동분서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뛰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 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 전국 20개 교회 889 성도들, 장기기증 희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 감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지난 3~4월, 전국 20곳의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총 889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약속했다고 알렸다.

먼저 강원도 원주시 원주영강교회(이성 목사)는 지난달 13일 종려주일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 참여한 성도 77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우상인 성도(33세)는 “10년 전 먼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던 아내를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1991년 첫 생명나눔예배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생명나눔 확산에 앞장서며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원주영강교회는, 현재까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 누적 477명을 기록하며 신앙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복교회(여성현 목사), 고양제일교회(이부형 목사), 광덕교회(윤한규 목사), 광안중앙교회(김상수 목사), 마석교회(곽병태 목사), 망양교회(이선하 목사), 민정교회(최연철 목사), 사자교회(전준택 목



사), 새군산교회(시현식 목사), 새성남교회(강정식 목사), 선한교회(박진숙 목사), 선한교회(김병수 목사), 세린교회(안성복 목사), 안양석수교회(김찬곤 목사), 연산교회(김지원 목사), 영신교회(윤종필 목사), 진주교회(김기덕 목사), 현동살룡교회(이강희 목사), 횃불교회(임정인 목사) 등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고 889

명의 성도가 이웃을 위해 서약했다.

김동엽 상임이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 감사드린다”면서 “장기기증이라는 사랑의 결실이 더 많은 생명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명나눔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월간목회’ 5월호

‘청지기라는 정체성’, ‘그에 합당한 삶’

‘월간목회’ 2025년 5월호에서는 ‘청지기라는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을 주제로, ‘부’와 ‘재정’에 대한 울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재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 깊이 연결된 주제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 부르셨고, 맡기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활용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즉 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헌려보내는가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 70인 천년초식품

### 천년초의 효능

- 1)페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제보고)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심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흉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햄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고난 이해하기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보다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세상이다. 고난의 신앙적인 이해는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이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물과 공기로 치명적인 병이 전염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은 항상 늦을 수밖에 없다. 메르스와 사스의 공포가 있던지만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강습했다.

수년간 전세계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아생동물을 먹는 중국인의 식습관이 원인일 것이다, 또는 고위험군 병원균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것이다' 등의 추측만 있을 뿐, 치료의 특효약도 없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으니,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졌다. 온 세계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로 조심한다. 두려운 일에 대하여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범인에 고난이 우연한 발생일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괴롭고 어려운 일, 고난은 세상에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에렌의 강]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별이는 의도적인 위험한 일, 즉 유전자 복제, 더욱더 강력한 인류 파멸의 전쟁 무기 등 그리고 우주에서 발생하는 인간이 조치할 수 없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다.

고난은 물리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고난의 시너지는 더욱 커져서 인생들의 슬픔은 더해진다. 특별히 고난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면 두려움이 더 커진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을 처리하고 위로할 만능열쇠 같은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때때로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께 담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하였던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새로워서 해결해주시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욥 5:7)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왜 교회에 나오니?

어느날...

주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교회)에 나갔더니?"

사람에게 시험 들려는 찰나였지요.

예수님이 정말 믿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계신지 알고 싶어서 왔다는  
나의 목적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아시는지

"내가 누군지 알 때까지는 그 어떤 것에도  
시험에 들어선 안된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길로 나가 생명 없는 길로 갈 뻔한 인생.  
방향을 바로 잡고 말씀에만 집중하던 어느 날.  
어둠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늦 7:24 말씀 앞에서 40년 전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  
추억하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

## 사설

## 사욕을 따르는 자

87년 체제 이후 우파 좌파가 번갈아 가면서 대권을 쥐었다. 대권을 쥔 리더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한 발언과 노선의 결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과도 다르고 심지어 문재인보다 훨씬 좌 쪽으로 경도(傾倒)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평가다.

그는 87 체제 이후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좌파 지도자임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1인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민주당이 그동안 해 온 행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일까? 삼권분립이다. 독재정권은? 삼권분립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정당일까? 독재당일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일까? 대법원 평가환승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는 말하기를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기득권 세력이 누구일까?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은 압도적 이식으로 폭주하는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일까? 우리가 알거나와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치범'은 없습니다. 삼권분립도 자리잡아 성공한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 판결이 좌우되는 국가는 독재국가 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온갖 억지와 떼쓰기 전략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민주화에 접근했던 몇몇 국가가 다시 독재 국가로 회귀했던 국가들의 행태가 바로 사법부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행태를 대한민국의 거대 애당인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의도다.

헝가리와 폴란드 디수당은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기편으로 강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징악했다. 동시에 삼권분립이 무너져 독재국가로 회귀한 것이다. 폐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3연임을 위한 판결하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7명 중 3명을 해임하기도 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천 년 만년 권력을 향유하려는 듯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다.

그 권력이 천 년 만년 같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밟아한 상태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앉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독재 정권으로 가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뭐라고 했나? 섬뜩한 말을 했다. 소름이 쪄~악 끼치는 말을 했다.

그가 말하기를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독재국가로 가자는 말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단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당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당을 거대당으로 만들어 준 유권자들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서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정당과,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큰 문제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저 상식적이고, 범죄에 대한 문제성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에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것인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자존심을 저밟는 행위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을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절망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친목회 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 4:3,4)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한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 제7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본 교단 협회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5년 5월 19일(월)
2. 등록 : 5월 19일(월) 오전 11시부터
3. 개회예배 : 5월 19일(월) 오후 1시

2025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영준